

듣는

2024년 11월호

마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3.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4

- 11월 1일 공과 -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주님
- 11월 8일 공과 - 필사적인 부르짖음
- 11월 15일 공과 -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
- 11월 22일 공과 - 다윗의 정복 사업(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의 전쟁과 정복)
- 11월 29일 공과 - 건져내리라

선교사 열전 ·134

하디 선교사(2)

호세아 8:1-14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멸망 선포

1 나팔을 네 입에 뿔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야훼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9**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앓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제단의 범죄

1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34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야훼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디도서 1장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23편

2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호세아 8:1-14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멸망 선포(1~10절)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선의지를 잃어버린 그들의 패역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공을 바쳐가면서까지 강대국과 보호 조약을 체결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음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패역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B.C 722년 그들을 도우리라 여겼던 애굽의 조롱 속에서, 앗수르의 침입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제단의 범죄(11~14절)

이방과의 동맹을 통해 이방 제의에 익숙한 에브라임은 언약의 조건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제의를 통한 '풍요'에는 관심이 있지만 율법을 통한 '변화'에는 무심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궁과 요새화한 성읍이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의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는 더 많은 죄를 쌓고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을 떠난 삶에 남는 건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9:1~14 멸망 심판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에 임할 형벌의 내용

1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 그들은 야훼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4**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야훼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 너희는 명절 날과 야훼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6**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8**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야훼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보다 **13** 내가 보전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보다 **14** 야훼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0 아하스 왕이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디도서 2장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126편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호세아 9:1~14

멸망 심판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에 임할 형벌의 내용(1~14절)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열거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던 호세아는, 본 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어떠한 형벌이 임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수확의 감소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확물로 헛된 신(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될 것, 세 번째로 그들의 영적 무감각, 무지함으로 인해 예언이 그치고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질 것과 마지막으로 자손이 감소할 것이 예언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는 순간, 그 대상의 운명은 파국으로 치달음을 보여 줍니다. 이에 성도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과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미워 버린 바 되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백성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택하여 과거 노예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고 과거의 모든 영광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잊지 않음으로써,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 죄와 불순종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10:1-15 징계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결과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3**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4**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발이랑에 돌는 독초 같으리로다 **5** 사마리아 주민이 벤아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6**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렘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제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7**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8**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웨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찢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심판으로써의 전쟁과 멸절

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0**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는 악을 밟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18**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라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디도서 3장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군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시편 129편

8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호세아 10:1-15

징계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결과(1-8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풍요로울수록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많아지고 더욱 그 타락의 도를 더해가는 그들의 패역한 두 마음과 교만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문화적 혜택도 점점 늘어가며 풍요를 만끽하는 축복받은 현대 사회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문화를 이용해 우상 숭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안타까운 현실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서의 전쟁과 멸절(9-15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강박함을 지적한 호세아는 이제 그 결과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있을 것이며 결국 무서운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 등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한 축복의 가능성을 선포함으로써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불순종 가운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11:1-12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반역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회복의 약속

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슬픔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빌레몬서 1장

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시편 133편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호세아 11:1-12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반역(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회복의 약속(5-1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앗수르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애굽과 앗수르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슬픔(12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대했지만,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께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실한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12:1-14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이스라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앓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2** 야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콥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 야콥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벰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 야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스라엘의 배반과, 야콥의 역사와 계획

7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9**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10**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11**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12** 야콥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3** 야훼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14**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1장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135편

3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호세아 12:1-14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1-6절)

이스라엘은 헛된 노력과 불순종으로 인해 앗수르와 애굽과 잘못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람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동풍은 저주받은 동풍과 바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역사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의 뒷발꿈치’는 야곱이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예서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 그의 발을 잡은 것으로 야곱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 야곱의 역사와 계획(7-14절)

이스라엘은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하셨지만, 그들은 불법과 허무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람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일상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13:1-16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심판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숭배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3**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야훼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8**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9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10**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 **12**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4**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15**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야훼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엮으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뱀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브리서 2장

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편 138편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호세아 13:1-16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심판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숭배(1-8절)

에브라임은 권위와 권력을 가졌지만 바알 숭배로 인해 망했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배교하며 덧없는 존재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배부름으로 인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자, 표범, 곰, 암사자와 같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9-16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는 결국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또한 회개를 미룰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14:1-9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결단과 하나님의 지혜

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8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히브리서 3장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시편 139편

4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호세아 14:1-9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의로 인해 넘어졌음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국가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4-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그들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단과 하나님의 지혜(8-9절)

에브라임은 우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처럼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며,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깨닫고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신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41:1-10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

1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엔 귀를 기울이소서 **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3**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 의인이 나를 칠 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6**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7** 사람이 밭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8** 주 야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 **9**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4장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엘 1장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을지어다

읽기 가이드

시편 141:1-10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1-10절)

다윗은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건져 주시길 바라며 드리는 기도가 마치 분향과 저녁 제사와 같다고 고백합니다(1~2절). 그는 악인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인의 책망을 겸허히 들을 수 있기를, 또한 자신을 책망하는 의인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4절).

악인의 미혹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악인과 함께 서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삶 속에서 믿음을 흔들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42:1-7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분깃이 되시는 주님

1 내가 소리 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5**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 왕이 단 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히브리서 5장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엘 2장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시편 142:1-7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분깃이 되시는 주님(1-7절)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쫓겨 동굴에 머물렀을 때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원통함과 우환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다윗은 자신의 편에 선 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른 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4절). 그는 외롭고 무력한 상황이지만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5절).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펄박하는 자에게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셔서 의인들과 함께 할 날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6-7절).

때로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움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크신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43:1-12 다윗의 회개

종의 간구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1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7**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9**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히브리서 6장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요엘 3장

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읽기 가이드

시편 143:1-12

다윗의 회개

주의 간구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1-7절)

시편 143편은 다윗 개인의 탄원시로 고난의 대한 언급, 하나님께 도움 요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원수의 핍박으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처지에 놓인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기를 바라며 긍휼을 구합니다(1~4절). 이어서 다윗은 탄원을 드리는 가운데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며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5-6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등장하긴 하지만, 다윗은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8-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 니이다”(12절).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44:1-15 다윗의 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

1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데도 **2**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5** 야훼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복

9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29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7장

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모스 1장

2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편 144:1-15

다윗의 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1-8절)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합니다(1~4절). 또한 인생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다윗이 볼 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생을 생각하신다니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2절). 또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임을 믿는 다윗은 용사이신 야훼가 전쟁터에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5~8절).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복(9-15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평화와 번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9~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봅시다. 우리를 정의의 잣대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잣대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15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1-27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아담의 족보

1 아담, 셋, 에노스, 2 게난, 마할랄렐, 야렛,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4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 자손의 족보

5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6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7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8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9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샅다와 라아마와 샅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10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11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12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13 가나안은 만나들 시돈과 헛을 낳고 14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15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16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 자손의 족보

17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텔과 메섹이라 18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19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며 20 욱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윳과 예라와 21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2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3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를 낳았으니 욱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24 셈, 아르박삿, 셀라, 25 에벨, 벨렉, 르우, 26 스룩, 나홀, 데라, 27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모스 2장

10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편 145편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역대상 1:1-27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아담의 족보(1-4절)

역대상 1장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먼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를 말합니다. - 이 구절의 이름들은 창세기 5장 3~32절에 근거하여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이르는 인류의 조상들을 추적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과 다윗 계열의 선택된 백성의 뿌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셈을 통해서 구속의 축복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 자손의 족보(5-16절)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멸망을 목격하고 포로 생활을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 주기 위해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즉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적 요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자신과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 택하신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심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셈 자손의 족보(17-27절)

셈의 후손들은 사막 지역(스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북동부(아람), 메소포타미아(앗수르),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역(엘람)도 차지했습니다.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셈족의 계보(셈의 자손들)를 다시 추적하며 확장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출생 순서의 역순으로 족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3:1-24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족보

다윗 왕의 자손

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2**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3**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4**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다스렸으며 **5**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밤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밋수아의 소생이요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7** 노가와 네벵과 야비아와 **8**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9**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 왕의 자손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11**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12**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13**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14**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17**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19**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20**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21**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22**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라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23** 느아라의 아들은 예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24** 예료에내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모스 3장

7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시편 146편

8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도 **10**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역대상 3:1-24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족보

다윗 왕의 자손(1-9절)

역대상 2장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는 포로기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밋세바의 아들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열거된 것은 역대기 기자 의 이전 족보들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계승자 를 마지막 위치에 두어 강조한 것입니다. 9절에서 한 명의 딸을 언급하는 것은 다윗의 딸이 한 명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왕족 이야기에 등장했음을 의 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 비록 다윗 왕조 가 멸망했지만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시 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 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 는 약속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을 맺은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 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왕의 자손(10-16절)

솔로몬 왕의 족보는 다윗 혈통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이 며 분열 왕국 시대와 북왕국 멸망 이후 시대의 다윗 왕조의 왕들을 열거합니다.

이상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 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 불순종으로 넘어지더라도 구원 과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 심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 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영원히 사 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6:16-32 거룩한 계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

16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립니와 시므이요 **18** 그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20**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립니요 그의 아들은 야핫이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21**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래이며 **22**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앓실이요 **23**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앓실이요 **24**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웃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25**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히못이라 **26**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배요 그의 아들은 나핫이요 **27**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만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29**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립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웃사요 **30** 그의 아들은 시므야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31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야훼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3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모스 4장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3**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니라

시편 150편

1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역대상 6:16-32

거룩한 계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16-30절)

레위의 각 아들의 족보는 최소한 두 세대로 열거되는 반면, 게르손과 므라리의 계보는 일곱 세대에 걸쳐 열거됩니다. 레위지파와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시고,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레위의 족보는 유다 족보를 제외하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계보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상징되는 거룩한 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얻어야 하고 지켜야 할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31-32절)

레위인으로 이루어진 악대는 다윗이 조직했는데, 그들은 음악과 예배를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팔 부는 일을 제외하면 제사장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음악 봉사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 된 교회는 레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8:29-40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남겨진 요나단의 자손들

29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30**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31**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32**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33**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34**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35**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36**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37**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38**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39** 그의 아우 에섹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40** 울람의 아들은 다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모스 5장

6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벤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장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역대상 8:29-40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남겨진 요나단의 자손들(29-40절)

사사기 19-21장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자손들이 심히 악하고 음란하여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연합하여 그들을 응징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군사는 26,700명이었고, 제1,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40,030명이 전사하였으나, 제3차 전투에서 베냐민 군사들은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된 것입니다.

이처럼 심히 악하고 음란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거의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지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존되었고 그 자손들이 변창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순종했던 사울의 가정은 망했으나 그중에서도 경건했던 요나단의 자손들은 남겨졌고 변창했습니다. 시편 37편 25-26절의 말씀대로 경건한 자의 자손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번창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시 37:25-26)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9:1-13 포로에서 귀환한 자의 명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평민들

1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4**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5**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6**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육백구십 명이요 **7**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므술람의 아들 살루요 **8**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웃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9**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구백오십육 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귀환한 제사장들

10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옏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12**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홀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새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므술람의 증손이요 므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13**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천칠백육십 명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모스 6장

12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쭉으로 바꾸며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누가복음 1장

41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역대상 9:1-13

포로에서 귀환한 자의 명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평민들(1~9절)

1-13절은 귀환민들의 명단과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선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에 기록된 12지파의 족보는 이들 귀환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한 자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9장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지파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약속)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귀환한 제사장들(10~13절)

본문은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과 숫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B.C.538년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맨 먼저 귀환한 자들로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들의 직무인 성전 제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되는 일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십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1:1~9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의 즉위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 니이다 **2**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4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6**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7**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8**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모스 7장

8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 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역대상 11:1~9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의 즉위(1~3절)

본문은 헤브론에서의 다윗 통치에 대해서조차 생략한 채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는 다윗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의 기록 관점에 따라 이전의 어둡고 불행했던 다윗의 과거는 생략하고 온 백성의 지지 속에 신정 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질서한 나라를 통합하여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주님께서 다윗 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교회)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주'(왕)로 고백하며 왕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4~9절)

본문은 원래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함으로써 신정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에 의해 정복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정 왕국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였듯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3:1-14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4**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5**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랴트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6**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트여아림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야훼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7**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옷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8**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들이지 못하다

9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 옷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 야훼께서 옷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옷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2**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모스 8장

11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누가복음 3장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역대상 13:1-14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1-8절)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지휘관과 의논하였고 그 결정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3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 왕정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에게로 옮겨오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울 왕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언약궤를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안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룩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을 모두 다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 왕국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모두 다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들이지 못하다(9-14절)

거룩을 상실한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옷사의 죽음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옷사의 죽음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킨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옷사의 집에 무려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옷사는 20년의 세월 동안 언약궤에 대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무례함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익숙해지면 무례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옷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고, 가볍게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옷사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옷사의 그 마음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옷사를 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5:1-15 모세가 야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곳과 사람을 준비하다

1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댈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3**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야훼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 그hat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백이십 명이요 **6**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이십 명이요 **7** 게르숨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백삼십 명이요 **8**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 명이요 **9**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팔십 명이요 **10** 웃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백십이 명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올리라고 명령하다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모스 9장

8 보라 주 야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대상 15:1-15

모세가 야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곳과 사람을 준비하다(1-10절)

다윗은 다윗 성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이는 다윗이 앞선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앞선 운반 때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를 이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블레셋 지방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블레셋은 그 재앙을 모면하고자,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때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 온 장면이 이스라엘에게 각인되었다면,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올리라고 명령하다(11-15절)

다윗이 제사장 두 사람과 레위 사람 지도자들을 불러서 언약궤 옮기기 전, 몸의 성결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거룩한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실패를 회상하는 다윗의 고백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과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소가 날떨 때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은 옷사가 비록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는 옷사 뿐만 아니라 다윗과 레위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었기 때문입니다. 옷사의 죽음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야훼의 말씀을, 다윗은 모세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대로 언약궤를 뒀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6:1-22 다윗과 백성들의 감사 제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섬길 사람들

1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3**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4**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뫼와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벰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6**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의 감사 찬양

7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11**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2-13**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4**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9** 그 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21** 야훼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3장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오바다 1장

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5장

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읽기 가이드

역대상 16:1-22

다윗과 백성들의 감사 제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섬길 사람들(1-6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둘 목적으로 따로 장막을 쳐서 성별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장막으로 옮긴 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로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종 순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레위인들처럼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주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7-18절)

다윗은 법궤를 안치시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의 찬양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시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민에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입술에 또 다른 찬양의 제목을 주시며 더 나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7:1-15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다

1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7**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약속하다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요나 1장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역대상 17:1-15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다(1-8절)

다윗은 자신의 왕궁이 건축되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 성전을 건축할 뜻을 선지자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다윗 후손(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망하고 간구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약속하다(9-15절)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당대에 이루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백성들 가까이에 있다는 그것으로도 백성들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야훼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8:1~17 다윗의 정복 사업

다윗이 주변 4대국을 정복하다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베푼 선정과 그 신하들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랏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9**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12**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16**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위사는 서기관이 되고 **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 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나 2장

-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누가복음 7장

-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역대상 18:1~17

다윗의 정복 사업

다윗이 주변 4대국을 정복하다(1-6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 온 영역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 열국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선정과 그 신하들(7-17절)

다윗은 도우가 가져왔던 선물들을 자신의 왕궁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을 항상 복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 하십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19:1-15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다

하눈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자들을 욱보이다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할 때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4**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불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밋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 내되 **7**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8**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9**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10**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11**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12**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4**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5**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요나 3장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읽기 가이드

역대상 19:1-15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다

하눈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자들을 욱보이다(19:1-15)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한 하눈이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눈과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이 요압의 군대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여리고로 보내 시간을 갖게 하며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요압과 아비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만큼의 호의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어야 할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1:1-15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다

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3** 요압이 아뢰되 야훼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4**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뽑은 자만 백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뽑은 자만 십칠만 명이라 **6**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

7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9** 야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11**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 혹 삼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야훼의 칼 곧 전염병이 사할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야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13**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야훼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칠만 명이었더라 **1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 때에 야훼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나 4장

2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누가복음 9장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역대상 21:1-15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다(1-6절)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안정되자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 하셨고, 그 징벌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전염병은 그쳤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자기의 막강한 군사력을 알아보고 싶은 교만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다윗이었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그는 자신과 온 백성에게 많은 상처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깨어 근신함으로써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7-15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꽤심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실 것을 계획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불리한 어느 한 가지를 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의 해결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 받는 것만이 신앙인에게 요구됩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2:1-16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다

1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멸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계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4**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5**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건축을 위탁하다

6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 이제 내 아들이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야훼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며 **12** 야훼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 그 때에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계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5**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미가 1장

2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3** 같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역대상 22:1-16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다(1-5절)

전장에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 고통당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의 제단을 쌓을 것을 암시해 주셨으며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될 솔로몬과 그를 도와 일할 방백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당부를 한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전장에서는 백성들을 계수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준비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좋은 기술자들로서 성전 건축에 적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참된 종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즉 주님의 종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건축을 위탁하다(6-16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꼭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또는 하나의 단체나 사회, 국가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개인의 일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3:1-20 레위인의 수효와 각자의 직무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다

1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2**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3**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4** 그 중의 이만 사천 명은 야훼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5**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야훼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6**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7**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11** 그 우두머리는 야합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

1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네 사람이라 **13**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야훼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15**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16** 게르솜의 아들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7**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18**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19**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20** 웃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잇시야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가 2장

11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누가복음 11장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역대상 23:1-20

레위인의 수효와 각자의 직무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다(1-11절)

다윗은 자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죽은 후의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불륜을 극복하고 낳은 아들로써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얻을 수 없었던 자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 수를 세어 야훼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 관리와 재판관의 일, 문지기, 찬송을 위한 일 등등 맡게 하였고 레위 사람을 게르손, 그핫, 므라리의 자손에 따라 계열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핫의 아들들(12-20절)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큼 위대했던 모세의 후손들이 일반 레위인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특별한 권위나 특권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 그의 후손을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를 버린다면 주님께서 열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 자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4:1-19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누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1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5**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7**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8**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9**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10**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11**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12**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13** 열셋째는 흠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14**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15**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16**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17**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18**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19**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미가 3장

8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2장

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역대상 24:1-19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누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24:1-19)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놓은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은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 즉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통해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맞춰서 예배한 인물입니다.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6:12-28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다

성전의 문지기를 준비하다

12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야훼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13**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14**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15** 오벰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16** 슝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래갯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17**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18**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19**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성전 곳간 맡을 사람을 준비하다

20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21**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22**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야훼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23**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웃시엘 자손 중에 **24** 모세의 아들 게르숨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25**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26**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27**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야훼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28**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벨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미가 4장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누가복음 13장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역대상 26:12-26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다

성전의 문지기를 준비하다(12-19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 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 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하 여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 비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성전의 문지기를 준비해두 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 역할이 그리 대단한 일 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후 세워도 늦지 않 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 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하고 사랑하 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성전 공간 말을 사람을 준비하다(20-26절)

성전 공간의 사람을 세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 전 공간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미리 책임자를 세우는 일은 대단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책임자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자 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 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마땅히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8:11-21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공포하다

솔로몬에게 전수된 다윗의 꿈

11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3**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14**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16**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17**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 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 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8**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야훼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솔로몬을 향한 당부

20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야훼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미가 5장

13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역대상 28:11-21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공포하다

솔로몬에게 전수된 다윗의 꿈(11-19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질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와 함께 설계도를 건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꿈이 자녀인 솔로몬에게 전수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꿈이 멈추지 않도록 나눠주고 흘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당부(20-21절)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다윗의 꿈을 전수 받은 솔로몬은 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를 안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근거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자신이 철저히 준비한 기술자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하신 은혜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만나는 하루가 두려울 수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상 29:1-14 함께 지어가는 성전

함께 지어가는 성전

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야훼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키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8**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야훼의 성전 공간에 드렸더라 **9**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의 찬양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 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미가 6장

9 야훼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누가복음 15장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역대상 29:1-14

함께 지어가는 성전

함께 지어가는 성전(1-9절)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갈 것을 공포하긴 했지만, 그 일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왕과 함께 모두가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일, 교회, 가정 등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며 그 일을 함께 할 때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10-14절)

지도자들이 헌신했다는 것은 다윗의 꿈이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감동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 다윗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감동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소유를 내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버거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11월 1일
공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주님

🎵 하나님 찬양하기

-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은 전 역사 가운데 우상으로 인해 눈이 멀었으며,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예언의 경고를 들을 때까지 이미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었으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바알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거짓 신을 섬기며 음란한 의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까요?(호 8:1)

적용과 나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결코 깨지지 않는 연애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가 자기 민족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포로 생활과 멸망을 보장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약속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저버린 백성은 결국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이 죄악 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호 8:11).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며 죄악 된 것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호 8:11-13)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8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때와 자신이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대적의 공격에서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와 반역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아주시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복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멸망이 다가오게 하심을 기억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종교적인 태도를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2.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이며 반복된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모습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11월 8일
공과

필사적인 부르짖음

🎵 하나님 찬양하기

-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140편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음모와 신성 모독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삶의 대부분을 불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시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실제로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다윗은 매우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다윗은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시 140:8)

적용과 나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원수들의 비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하시며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임을 확고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1.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악인들을 향해 어떠한 탄원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시 140:9-10)
2.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시 140:12)

적용과 나눔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직면하게 될 박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자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해를 입히려는 하는 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상모략하는 험담꾼들이 그들의 명성을 더럽히려 할 것이며, 복음의 반대자들은 그들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
다지기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며, 건져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다윗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주하였듯이,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얻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 모든 성도가 고난을 겪지만, 모든 성도가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하여 변화된 성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5일
공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

🎵 하나님 찬양하기

- 545장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뵈어도
-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부터 시작하여 순교자들 까지 믿음으로 이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지, 승리를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증거 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본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과 극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으로 믿음을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히11:4)

2. 에녹이 죽기 전에 받았던 증거는 무엇인가요 (히11:5)

💬 **적용과 나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히11:23)

2.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요? (히11:26)

💬 **적용과 나눔**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극한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 이면에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경주를 할때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를 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며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원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명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충심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더욱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의 정복 사업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의 전쟁과 정복)

🎵 하나님 찬양하기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역대상 18장 1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왕권 강화라는 약속된 말씀이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18:1에서 블레셋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 18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20장에서는 블레셋을 복속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정복 기사는 블레셋으로 시작해서 블레셋을 복속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다윗이 전쟁하여 정복한 나라들이 어디인가요?(1절, 2절, 3절, 5절)
2. 다윗이 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역대상 17장 7,8절 참조)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과 정복함에 있어, 주어가 다윗인 것처럼 내용이 서술됩니다.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3절에서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절에서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6b)”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 **적용과 나눔** 최근 한 달 동안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보세요.

관찰과 묵상

다윗이 아람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들은 무엇인가요?(7-8절)

나중에 솔로몬은 다윗의 전리품들을 모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 합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왕은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어느 것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준비했습니다. 이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말씀 다지기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 같은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씩 거침없이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한 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모두 다윗에게 굴복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약속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규모와 같은 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나는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약속)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29일
공과

전져내리라

🎵 하나님 찬양하기

- 94장(통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488장(통539)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미가 5장 2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이 된지 꽤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당시 남과 북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가는 앗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가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틈에도 소망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이스라엘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2절)



적용과 나눔 죄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 구원자를 보낼 것을 예고하듯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찰과 묵상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중 불쑥 나온 구원자의 소식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일까요?(5절)



적용과 나눔 구원자를 통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막연한 소망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소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빈번한 전쟁으로 고통과 걱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며 이야기 나눠 봅시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삶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모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으며 든든히 서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하디 선교사(2) (Robert A. Hardie)(1865~1949)

(한국 체류 : 1890~1935)(한국이름 하리영 선교사)

중국의화단 사건으로 피신해 온 두 여선교사들이 한국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회 개최

중국의 의화단사건을 피해 원산에 온 여 선교사 화이트(Mary C. White)와 캐나다 장로회 출신 여 선교사 맥컬리(Louise H. McCully)는 자기들이 조선에 와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조선인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맥컬리 선교사는 원산에서 의사 겸 목사로 사역하던 하디 선교사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들”을 주제로 설교 부탁하였다.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하리영) 선교사의 좌절감

1903년 원산대부흥의 배경에는 젊음을 바쳐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닌 하디 선교사의 좌절감과 영적 침체가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좌절감은 1884년 알렌의 입국 이래 선교 20년을 맞이한 내한 선교사들의 공통적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이하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습니

다. 교인 하나는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대부분의 조선 신자들이 머리의 회개(head conversion)는 이루었으나 마음의 회개(heart conversion)는 이루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당시 조선 교회와 조선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어쩔 수 없는 족속이라 여기며……”라고 하디 선교사는 선교본부에 보고하였다.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하리영) 선교사의 뜨거운 회개

하지만 하디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자신이 선택한 성경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이 자신에게 없었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도회를 준비하던 하디는 자신이 말씀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통회했다.

1904년 제 7차 연례회의에서 그 당시 기도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그 열매들을 증거하는 믿음을 보기 갈망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지속적인 어떤 회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지식인으로 만드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아침 원산 교인들 앞에 서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저의 자만과 냉담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부족과 같은 것들을 고백하였더니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의 깨달음과 참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준 사건

하디 선교사는 이 기도회를 통해 ①백인으로서의 갖는 인종적 우월감 ②의사로서의 신분적 교만함 ③성령 충만 없이 해 온 사역을 회개하였다. 이는 하디 선교사 개인의 회개와 통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준 사건이었다.

“집회 기간 내내 교인들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였다. 자백의 열기가 너무 고조되어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것도 두 세 차례나 되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은 다투어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성경 본문 어디를 읽든, 어떤 문장으로 설교를 하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쫓아내는 것 같았다. 집회가 끝날 즈음에는 교인 대부분과 상당수 다른 사람들까지도 회개하였다. 모두가 하는 말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신앙 체험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하디 선교사 보고서에서)

로스 선교사(*서북인들의 도움으로 한글을 배워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스코틀랜드 출신 만주 선교사임)의 어학 선생 진천수는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고,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죽은 후에는 이를 수습하느라 친구와 명절을 보낼 수 없어 아내를 저주했습니다.”라고 회개하였다. 한국교회에 마음을 올린 진실한 죄의 고백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회심 후 하디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하였다. 회심하기 전에는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며 병이 들어도 하디에게 치료를 받기를 주저했던 환자들은 하디가 은혜를 받은 후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증언하는 등,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디의 성품과 인격과 삶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하디 선교사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은상철 장로)